

## ‘벼 재배면적 조정제’ 농민 반발 거세다

농림부 올해 8만ha 감축 방침 전남 1만5천ha 최대  
미이행시 공공비축미 제외...이행 인센티브는 ‘미미’  
농민단체 “일방적 감축 농가 피해”...전남도도 우려

정부가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전체 재배 면적 중 10% 이상 일괄 감축을 강제하고 미이행 페널티까지 부과하면서 쌀값 하락에 대한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재배 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감축 면적은 지난해 전체 벼 재배 면적 69만7천738ha의 11.4% 규모다. 감축 면적은 전남이 1만5천831ha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지난해 전남 쌀 재배면적 14만7천738ha의 10.7%를 차지하

며 최근 5년 간 줄어든 재배면적(8천492ha)의 2배에 달한다. 전체 벼 재배 농가는 타작물 전환, 친환경·가루쌀 전환, 휴경 등을 통해 재배 면적을 10% 이상 감축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가 참여 유도를 위해 올해 ‘전략 작물직불제’ 예산을 578억원 확대하고 하계 조사료와 밀 지급단가를 ha당 각각 7만원, 50만원씩 인상할 계획이다. 이행 여부와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도 부과할 방침이다. 감축 목표 미달성 지자체에 공공비축물량 최대 15% 감축 페널티를, 초과 달성은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의 인센티브

를 제공한다. 개별 농가도 감축 이행 시 공공비축미를 우선 배정하되 미이행 시 아예 배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그러나 농민단체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소득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영농권·재산권까지 침해한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전국 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분부는 지난 16일 전남도청 앞에서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쌀값 하락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2면에 계속 /양시원기자



“벼 강제 감축 반대” 정부가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해 농민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전남지역 농민들이 최근 전남도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쌀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제공>

## 공수처,尹대통령 조사실 ‘강제구인’ 시도

체포·구속 이후에도 거듭 조사 불응...검사·수사관 6명 보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구속 이후에도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20일 오후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날 오후 8시 현재 윤 대통령이 대한 강제구인 여부 등 서울구치소의 정확한 내부 상황은 공식 확인

되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2·3·6면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에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 구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냈다. 공수처와 경찰이 포함된 비상계엄 조치수사본부는 기자단 공지지를 통해 “공

수처는 이날 오후 3시에 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위해 검사와 수사관 6명이 차량 2대로 구치소로 갔으며 현재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16·17일 공수처의 조사 출석 요구에 모두 불

응했다. 이어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공수처가 당일 오후 2시와 이날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할 것을 2차례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1차 구속 기간(10일)이 오는 28일 만료될 것으로 예상돼 대면 조사가 시급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자 강제구인 시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조사에도 불응할 연락이 나오지 않자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재정기자·연합뉴스

## 알림

### 다문화가족 희망콘서트 With 정동하

2월27일 오후 6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

지역 문화 창달에 앞장서고 있는 광주매일신문이 ‘정동하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희망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광주지역협의회가 주최하고 광주매일신문 주관으로 오는 2월27일(목) 오후 6시30분 광주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다문화가족 희망콘서트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을 격려하고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따뜻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됩니다. 고려인마을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과 지역 출신 가수 및 ‘대한민국 대표 라이브 가수’ 정동하가 출연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입니다. ‘다문화가족 희망콘서트 With 정동하’에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공연명: 다문화가족 희망콘서트 With 정동하
- 일 시: 2025년 2월27일(목) 오후 6시30분
- 장 소: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
- 주 최: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광주지역협의회
- 주 관: 광주매일신문사
- 문 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4)

광주매일신문

## ‘미국 우선주의’ 다시 트럼프 시대

제47대 대통령 취임...대북정책 따라 한반도 영향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관련기사 8면 트럼프 당선인은 20일 낮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홀(로튼다)에서 취임식을 한다.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는 미국 헌법에 따라 낮 12시(한국 시간 21일 오전 2시) 시작된다. 2020년 대선 패배 부정과 2021년 1·6 의사당 폭동 사태 등에 따른 초대형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4년 만에 역사적인 ‘정권다리’ 재집권에 성공, 트럼프 20사대의 문을 여는 것이다. 미국 이익 중심의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한반도를 비롯한 글로

벌 안보와 국제 무역 질서가 다시 한번 대변혁의 시기를 맞게 됐다. 특히 신(新)식민주의, ‘돈로 독트린’ 등으로까지 불리는 취임 전 영토 확장 공세에서 보듯이 미국 유권자의 재선임을 받은 트럼프 2기 정부는 단순히 1기의 연장자 아니라 더 독해진 ‘마가 정부’를 예고하면서 전 세계를 초긴장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연합뉴스

Today	
2028 수능 선택과목 없어진다	7면
광주 문인협회 문학마당	15면
4년차 김도영, 몸값 초미관심?	16면

###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약속한

#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 온 도민의 염원으로 이루어내겠습니다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국립순천대·국립목포대가 통합하여 하나의 대학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 작년 12월 31일,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2026년 3월 통합대학 개교를 위해 교육부에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지역 상생과 화합의 가치를 담은 대학통합과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을 온 전남도민이 전폭적으로 응원하고 정부에서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대학으로 선정된 양 대학의 통합은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거점 국립대학으로 성장하는 든든한 발판이자,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모범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 전라남도는 역사적인 통합대학교가 초입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양 대학의 통합은 도민의 30년 염원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실현 시킬 강력한 기록제가 될 것입니다.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은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의 사령탑 역할을 담당하며, 우리 지역에서 도민 모두가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 전라남도는 어려운 대학 재정 여건을 감안해 동·서부 지역에 신설될 대학병원 설립도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1도 1국립대학의 선도 모델인 대학 통합과 정부 담화문을 통해 약속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의대 정원배정을 신속히 이행할 때입니다.**

- 전라남도는 도민의 건강권·생명권 확보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대학 통합과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완료될 때까지 도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0만 도민께서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힘을 모아주시요!

전라남도 JeollaNamdo